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양경미¹, 오창홍¹, 박정환^{1*}
¹제주대학교 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Format on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raumatic Case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Kyoung-Mi Yang¹, Chang-Hong Oh¹, Jung-Hwan Park^{1*}

¹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경찰관서 4개소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 297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 사이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on influence ov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traumatic case experience. In order to investigate, police officers from 4 police stations in Jeju were selected as subjects, 297 police officers. Data processing analysis of the research was verified by going through Baron & Kenny's regression analysis in 4 phases and Sobel Test was done to verify significance level on mediation effect. Through the research by confirming the manifestation route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after traumatic case experience, assisted in setting up of appropriat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tervention program and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ultimately help police officers to break free from post traumatic stress and establish positive and dynamic work environment.

Key Words : police officer, traumatic stres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aumatic event

1. 서 론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 즉 외상성 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1]. 외상성 사건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1,2].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인 후유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어지기도 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일차 증상인 재경험, 과각성, 회피의 증상 뿐 아니라 이차 증상인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그리고 술과 향정신성 등의 약물 남용 등도 수반된다. 특히 우울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어 일반적인 증상이며, 이는 자살의 전조가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4,5]. 이차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National Univ.)

Tel: +82-10-9843-2620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November 11, 2014 Revised (1st December 31, 2014, 2st January 5, 2015, 3rd January 7, 2015) Accepted January 8, 2015

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찰관은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 군인, 소방관,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외상사건 노출로 인한 PTSD 고위험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6]. 이들은 제일선에서 사건 현장들을 접하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즉각 처리해야 하므로 본인의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내 경찰관의 피해 경험 실태연구[7]에 의하면, 경찰관은 업무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피해유형이 경찰관서에서의 음주수란, 기물손손, 악의적 공무집행방해, 욕설 등 모욕행위, 직접적 폭행행위 등 매우 다양한 범주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은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피로운 사건”으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사건은 경찰관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다. 둘째, 외상사건은 동료, 본인의 신체적 능력, 본인의 지위를 잃는 상실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믿음 또는 이상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였다[8]. 이처럼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며[9], 외상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스트레스와 병적 증상 사이에서 관계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로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처양식이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10],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요인이라고 말하였다[11]. 또한 Peterson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들로 대처양식과 성격요소를 주장하였다[12].

[13]의 연구에서는 PTSD 증상 정도에 대해 대처방식의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 모두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심한 정도의 PTSD 증상을 보이는 집단에서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14]. 이 연구에서의 대처방식은 회피대처와 접근대처로 나누었는데 회피대처가 외상경험과 PTSD 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아동 성학대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처양식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처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이에 관한 일관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관한 문제는 조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나[13, 14, 15, 16, 17, 18] 내·외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제주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할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다. 따라서 제주지역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실정을 확인하고,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을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업무 중에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현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경험 수, 충격정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문제 중심적, 정서 중심적, 역기능적)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 2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내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318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297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2 자료처리

자료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오류 검토 작업 후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상성 사건 경험, 스트레스 대처양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검증(reliability test)을 통해 연구에서 사용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인 외상성 사건 수,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매개로 한 영향력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제주지역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계급, 근무부서, 근무년수, 외근년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297명 중 서귀포 지역 경찰관 95명(32%), 제주시 지역 경찰관 202명(68%)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56명(86.2%), 여성은 41명(13.8%)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5명(8.4%), 30대가 114명(38.4%), 40대가 133명(44.8%), 50대가 25명(8.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79.2%가 30대와 40대에 분포되어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34명(11.4%), 기혼이 260명(87.5%), 이혼이 2명(0.7%), 사별이 1명(0.3%)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기혼이다. 계급별로는 순경이 33명(11.1%), 경장이 61명(20.5%), 경사가 137명(46.1%), 경위 이상이 65명(21.9%)으로, 조사자의 대다수(77.7%)가 경

사 이하이다.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이 32명(10.8%), 대체로 건강이 124명(41.8%), 보통이 106명(35.7%), 약간의 질병 보유가 27명(9.1%), 심각한 질병 보유가 8명(2.7%)으로,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인 88.3%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이다. 제직기간 중 경험한 외상성 사건 수의 평균은 10이며, 0부터 23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총 23개의 사건 목록 중 경찰관이 근무 중에 10개 종류의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관들은 다양한 종류의 외상성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사건 충격의 평균은 4.48이며, 0부터 9.29까지 분포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해 최대 10점의 충격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각 사건에 대해 평균적으로 4.48의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 외상성 사건에 대한 충격 정도는 보통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을 보면,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합/문항수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으로 합/문항수가 2, 그리고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합/문항수가 1.67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1부터 4까지의 4점 척도 중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각 문항별 평균 점수가 2.19라는 것은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보통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이 2인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그보다 조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의 하위 항목은 구성하는 문항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 아닌 합/문항수로 세 가지 대처양식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살펴보면, 합이 5.69로 PTSD 진단기준인 25점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항목별 수준을 살펴보면 과거 장면으로의 회상, 꿈을 꾸는 등의 침습 증상이 합/문항수가 0.29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피하는 회피 증상이 0.28로, 그리고 과도한 경계, 과민성의 과각성 증상이 0.19로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fects the mediating effect of a problem-focused coping sty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tep1 (rudfhA)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Problem-focused coping style		.211	.046	.258	4.580***
	F= 20.974*** R ² (adj-R ²)= .66 (.63)					
step2 (rudfhB)	Problem-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644	.100	.352	6.455***
	F= 41.665*** R ² (adj-R ²)= .124 (.121)					
step3 (rudfhC)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01	.082	.334	6.086***
	F= 37.044*** R ² (adj-R ²)= .112 (.109)					
step4 (rudfhC')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391	.082	.261	4.790***
	Problem-focused coping style →		.521	.100	.285	5.231***
	F= 33.856*** R ² (adj-R ²)= .187 (.182)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258, p <.001),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66%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66).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352,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2.1% 설명하였다(R^2 =.121).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34,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9% 설명하였다(R^2 =.109). 이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셋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경험수의 설명력(R^2)은 18.2%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7%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7%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3.856, p <.001).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285, p <.001), 외상성 사건 경험수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261,

p <.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경험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매개변인인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211, b=.644, s_a =.046, s_b =.100) 외상성 사건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β :.334→.261)가 유의하였다(Sobel's T: z =3.74, p <.05).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fects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focused coping sty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tep1 (rudfhA)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Emotion-focused coping style		.314	.059	.297	5.347***
	F= 28.586*** R ² (adj-R ²)= .088 (.085)					
step2 (rudfhB)	Emotion-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54	.076	.391	7.286***
	F= 53.091*** R ² (adj-R ²)= .0153 (.150)					
step3 (rudfh C)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01	.082	.334	6.086***
	F= 37.044 R ² (adj-R ²)= .112 (.109)					
step4 (rudfhC)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358	.082	.239	4.388***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motion-focused coping style →		.453	.077	.319	5.865***
		F= 37.817 R ² (adj-R ²)= .205 (.199)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297, p <.001),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8.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85).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391,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5% 설명하였다(R^2 =.150). 외상성 사건 경험수는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34,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9% 설명하였다(R^2 =.109).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셋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경험수의 설명력(R^2)은 19.9%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9%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7.817, p <.001). 또한 이 과정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319, p <.001), 외상성 사건 경험 수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239,

p <.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경험 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매개변인인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314, b=.554, s_a =.059, s_b =.076)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β =.334→.239)가 유의하였다(Sobel's T: z =4.30, p <.05). 따라서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Number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fects the mediating effect of a dysfunctional coping sty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tep1 (rudfhA)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Dysfunctional coping style		.414	.065	.349	6.406***
	F= 41.040*** R ² (adj-R ²)= .122 (.119)					
step2 (rudfhB)	Dysfunctional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763	.059	.603	12.979***
	F= 168.443*** R ² (adj-R ²)= .363 (.361)					
step3 (rudfh C)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01	.082	.334	6.086***
	F= 37.044 R ² (adj-R ²)= .112 (.109)					
step4 (rudfhC')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211	.073	.140	2.868***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ysfunctional coping style →		.700	.062	.554	11.306***
		F= 90.397*** R ² (adj-R ²)= .381 (.377)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 수는 유의하게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349, p <.001), 역기능적 대처양식에 대해 11.9%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119).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603,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36.1% 설명하였다(R^2 =.361). 외상성 사건 경험수는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34,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9% 설명하였다(R^2 =.109).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수와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경험수의 설명력(R^2)은 37.7%로 3 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1.6%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1.6%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90.397, p <.001). 또한 이 과정에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554, p <.001), 외상성 사건 경험 수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140, p <.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

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경험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414, b=.763, s_a =.065, s_b =.059)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β =.334→.140)가 유의하였다(Sobel's T: z =5.71, p <.05). 따라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on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mediating effects of a problem-focused coping sty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tep1 (rudfhA)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Problem-focused coping style		.442	.109	.229	4.041***
	F= 16.329*** R ² (adj-R ²)= .053 (.049)					
step2 (rudfhB)	Problem-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644	.100	.352	6.455***
	F= 34.568*** R ² (adj-R ²)= .105 (.102)					
step3 (rudfhC)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143	.194	.324	5.879***
	F= 34.568*** R ² (adj-R ²)= .105 (.102)					
step4 (rudfhC)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906	.191	.257	4.750***
	Problem-focused coping style →		.536	.099	.293	5.414***
	F= 33.604*** R ² (adj-R ²)= .187 (.181)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는 유의하게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229, p <.001),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4.9%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49).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352,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2.1% 설명하였다(R^2 =.121).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는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24,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2% 설명하였다(R^2 =.102).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의 설명력(R^2)은 18.7%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7.9%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7.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3.604, p <.001).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257, p <.001),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293, p <.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매개변인인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314, b=.554, s_a =.059, s_b =.07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β =.324→.257)가 유의하였다(Sobel's T: z =3.43, p <.05).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on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fects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focused coping sty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tep1 (rudfhA)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Emotion-focused coping style		.737	.138	.297	5.326***
	F= 28.635 R ² (adj-R ²)= .088 (.085)					
step2 (rudfhB)	정서중심적 대처양식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554	.076	.391	7.286***
	F= 53.091*** R ² (adj-R ²)= .153 (.150)					
step3 (rudfhC)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143	.194	.324	5.879***
	F= 34.568*** R ² (adj-R ²)=.105 (.102)					
step4 (rudfhC)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456	.078	.321	5.873***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motion-focused coping style →		.807	.193	.229	4.184***
		F= 36.500*** R ² (adj-R ²)= .199 (.194)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는 유의하게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β =.297, p <.001),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에 대해 8.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 =.085).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β =.391,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2.1% 설명하였다(R^2 =.121).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는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β =.324, p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2% 설명하였다(R^2 =.102).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의 설명력(R^2)은 19.4%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9.2%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7.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6.500, p <.001). 또한 이 과정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β =.229, p <.001),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321, p <.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매개변인인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 .737, b =.554, s_a =.138, s_b =.076)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β =.324→.321)가 유의하였다(Sobel's T: z =4.31, p <.05). 따라서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on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mediating effects of a dysfunctional coping sty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step1 (rudfhA)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Dysfunctional coping style		.802	.156	.288	5.150***
	F= 26.518*** R ² (adj-R ²)= .083 (.080)					
step2 (rudfhB)	Dysfunctional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763	.059	.603	12.979***
	F= 168.443*** R ² (adj-R ²)= .363 (.361)					
step3 (rudfhC)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143	.194	.324	5.879***
	F= 34.568*** R ² (adj-R ²)=.105 (.102)					
step4 (rudfhC)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581	.168	.165	3.452**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ysfunctional coping style →		.702	.060	.555	11.623***
		F= 92.713*** R ² (adj-R ²)= .388 (.383)				

*p<.05, **p<.01, ***p<.001

분석결과,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는 유의하게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으며(경로 A: $\beta=.288, p<.001$), 역기능적 대처양식에 대해 8.0%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080$).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B: $\beta=.603, p<.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36.1% 설명하였다($R^2=.361$). 외상성 사건 충격 정도는 유의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예측하였으며(경로 C: $\beta=.324, p<.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10.2% 설명하였다($R^2=.102$). 이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건 모두 충족되었다. 넷째 조건(경로 C')을 검증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와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독립변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추가하였을 때,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의 설명력(R^2)은 38.3%로 3단계에 비해 전체 설명량이 28.1%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추가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설명량이 28.1%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92.713, p<.001$). 또한 이 과정에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eta=.555, p<.001$),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165, p<.001$).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효과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된 것이다. 즉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a: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b: 매개변인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의 비표준화 계수, Sa: a의 표준오차, Sb: b의 표준오차). 검증결과(a= .802, b=.763, $s_a=.156, s_b=.059$)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324 \rightarrow .165$)가 유의하였다(Sobel's T: $z=4.78, p<.05$). 따라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외상성 사건 경험(외상성 사건 경험 수,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문제중심, 정서중심,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부분 매개 효과는 모두 검증되었으며, Table 7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별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7] research result

Hypothesis	Path direction	Whether adopted
1-1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Problem-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doption
1-2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Emotion-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doption
1-3	You can experience a traumatic event → Dysfunctional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doption
1-4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Problem-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doption
1-5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Emotion-focused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doption
1-6	About the impact of traumatic events → Dysfunctional coping style →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doption

4. 논 의

첫째,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경찰관들의 평균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정상범주에 속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도를 보였다. 선행연구 [1,7,12]에서는 비교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도가 높게 확인되었는데 특히 [12]의 연구에서는 PTSD 집단이 40%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를 외근 근무자로 한정하여 설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경찰관이 정상범주에 속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가능한 완전 PTSD 집단은 9명(3.0%)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상범주에 속하는 대다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는 소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찰관을 엄밀히 선별하여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 상담 등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찰관이 직무상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으로 274명(92.3%) 경험하였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근무 중 사체를 목격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피습, 부상당하는 사건 보다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사건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한다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간접 외상 사건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하위요인인 외상성 사건 개수와 외상성 사건 충격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 충격 정도가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외상성 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지, 어떠한 사건이 충격정도가 심한지 분류하여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이고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쇼크, 지남력장애, 분리로부터의 공포, 편집증, 공격성에 이르는 외상 주변(peritraumatic) 증상들은 외상성 사건 동안이나 직후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외상 주변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 즉시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근무년수와 외근근무년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잠재적인 외상성 경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업무 자체가 항상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발화(kindling)에 비유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외상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증가하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의식 밖에서 점차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20]. 이러한 발화는 수년 동안 상대적으로 잘 기능을 해 오던 사람들이 스트레스적인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사건 당시 충격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나 의식 밖

에 있던 잠재적인 외상 사건들이 외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되다보면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적된 외상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외상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부가적인 외상에 대한 노출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줄이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는 바람직한 대처법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경찰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 역기능적 대처 양식 모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논문에서 의하면 회피 양식인 역기능적 대처 양식만이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처양식 전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대처양식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해줌과 동시에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제시함으로써 경찰관 스스로가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문제 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가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거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시대상은 제주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해준 일부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전체 경찰관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정확한 상태 확인 및 일반화를 위해서는 경찰청 단위에 전수 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뒤에 설문의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보다 더 경찰관의 내면에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는 경

찰관이 근무 중에 경험하는 사건을 총 23개로 제작되어 있다. 현장에서 접하는 충격적이 사건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현장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 목록을 추가하여 제작하여 보다 정확한 외상성 사건 경험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대해 실질적 관찰과 사례중심으로 분석하고, 심층 면담이나 상담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같이 병행 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모형 적합도의 과대평가와 양적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References

- [1] I. H. Hwang “ **Influences of police officers’s job stress and traumatic stress on burnout** ” .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rsty of korea, 2009.
- [2] S. M. Kuan “ **Modern Abnormal Psychology** ” . seoul: Hakjisa. 2003.
- [3] B. R. Nan “ **Psychometric Quali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Diagnosis Scale(PDS)** ”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isty. 2008.
- [4] S. J. Kim. H. Kim “ **Hyuyujeung traumatic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seoul: Hakjisa. 2000.
- [5] J. M. Ba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Policemen and Firefighters** ” . Dept. of Disaster Science. 2011
- [6] Y. C. Kwon. “ **Pst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TSD Symptoms among Police Officers** ”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2012.
- [7] S. W. Sin. “ **Articles : Effects of the Violence Experience on Burnout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 . Korea Institute of Police. 2010.
- [8] J. K. Kim. “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of Police Officers** ”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 of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2012.
DOI: <http://dx.doi.org/10.1093/acprof:oso/9780198063803.001.0001>
- [9] Y. J. Jeon. “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of Police officers** ” .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2010.
- [10] Lazarus, R. A.&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 Coping**. springrr. New York
- [11] M. J.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tate of Adaptation of The Hemiplegic Patients** ”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1990.
- [12] O. J. Lee. “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 Experiences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 Focusing on the Mediating &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2.
- [13] H. Y. Shin. “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TSD Symptomes of Urban Fire fight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ype D Personality and Coping style** ” .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2012.
- [14] M. O. Ann. “ **The effects of traumatic experience, coping skill,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symptio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olescents** ” ,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Han Lelem. University, Korea, 2008.
- [15] K. H. Lee. “ **The study of PTSD Symptoms of low enforcement Officers Exposed to Critical Incidents: Focusing on Police officers in detective** ” . Department of Forensic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isty. 2011.
- [16] Marmar, C., McCaslin, S., Metzler, T., Best, S., Weiss, D., Fagan, J., et al. “ **Perdicators of Posttraumatic Stress in Police and Other first Responders.** ” .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6.
DOI: <http://dx.doi.org/10.1196/annals.1364.001>
- [17] Pstterson, G. “ **Examining the effect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on work and life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 . Journal of ciriminal justice.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047-2352\(03\)00003-5](http://dx.doi.org/10.1016/S0047-2352(03)00003-5)
- [18] J. K. Kim. “ **The Relationship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ger Expression of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2.
- [19] Baron, R., & Kenny, D. “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

”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6), 1986.

- [20] Jon G. Allen · Ph. D. “**Coping with Trauma**” . J. H. Kwon · J. B. Kim, Y. L. Jou H. K. Che. “**Healing Trauma**” . seoul: Hakjisa. 2005.
-

양 경 미(Kyoung-Mi Yang)

[정회원]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졸업
- 2014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졸업
- 2005년 11월 ~ 현재 :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근무

<관심분야>
인터넷 중독, 성폭력

오 창 흥(Chang-Hong Oh)

[정회원]



- 1991년 8월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3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91년 4월 ~ 2010년 12월 : 제주도교육청 수련지도관
- 2012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상담심리,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